

Korean Libraries Today and Tomorrow : College & University Library

■ 1977年 圖書館界의 回顧

大學圖書館界

朴 尙 均
東大圖書館司書主任

머 리 말

해마나 이 무렵이 되면 누구나 지난 1년 동안울 돌 아보면서 저물어가는 한 해의 아쉬움속에서 자기 反省도 해보고 닥아올 새해에 대한 설계와 전망을 나름 대로 해보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 아닌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圖協」에서는 올해에도 또 관중 별로 도서관계 회고 특집을 마련한 것 같다. 그런데, 「77년도 대학도서관계 회고」를 筆者에게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한동안 망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필자에게는 너무 의탁된 청탁이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의 회고 정도라면 몰라도 전국적으로 백 수십개나 되는 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 도서관들에 대해서 이렇다할만한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할 것이고, 전국대학도서관계의 動靜에 대해서도 일일이 아는 바가 없는 필자로서 감히 범대학도서관계의 회고를 쓴다는게 어떻게 생각하면 년센스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本稿는 우리 대학도서관계의 한 해의 회고라기 보다는 우리 대학도서관계가 지금까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圖書館의 教育的 機能強化問題

흔히 回顧라고 하면, 자기 닦두리가 되기 쉽다. 하물며 大學社會에서 아직도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인으로서 푸념밖에 더 나올상 싶지 않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나 지금이나 대학도서관은 대학사회의 寵兒로서 脚光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도 일부 대학행정 당국자나 교수·학생들은 대학사회에서의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우리 도서관인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대학도서관의 발전없이는 대학의 발전이 없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대학사회에서의 도서관은 여전히 專門司書들의 숨은 勞苦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거나 아니면 대

부분 이름만의 도서관으로서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미국의 예일大學校 중앙도서관 건물 정문 입구에는 “圖書館은 大學의 心臟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심장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듯이 도서관이 유명무실하고 보면 대학의 研究機能은 상실하고 말것이다. 우리 대학행정 당국자들도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실질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도서관은 다른 부서에 비해 언제나 소외 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즉 대학의 행정당국자들은 대학의 대외 PR같은 데는 온갖 열을 올리는 것 같으나 대학에서의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과 도서관인의 임무가 과거의 靜的인 것과는 달리 대학 연구활동의 강력한 힘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학의 자랑은 훌륭한 건물을 많이 건축하거나 훌륭한 운동선수들 많이 양성하는데 있는 것만은 아닐 줄 안다.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훌륭한 도서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본질적 사명이 연구·교수이기 때문에 훌륭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대학 발전의 첫째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世界의 名門校로 발전한 예일대학교가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이라고 한 것도 이와같은 뜻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3월에 着工한 바 있는 延世大學校 超現代式 中央圖書館의 新築의 경우나 작년 12월에 着工하여 지난 10월에 開館한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분야의 전문가로센터인 서울市立産業大學 중앙도서관의 예는 우리 大學圖書館界의 밝은 전망을 보여준 것으로서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대학행정당국이 대학의 본질적 사명을 달성시키기 위한 도서관 행정의 적극적인 표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현대식 도서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최신문헌정보자료를 많이 구비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도 곧 훌륭한 도서관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처럼 고도로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學術文化 및 각종공분야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지식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

는 專門司書의 確保없이는 궁극적으로 도서관이 大學에서의 그 教育的 機能을 達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사회에서는 도서관의 專門人에 대한 인식이 잘 안되어, 일부 대학같은 데서는 人事行政面에 있어서 도서관직원들의 전문직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일반직과 동일시하여, 어떤 도서관의 경우는 非專門人의 수요가 專門人數보다 더 많은 인적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도서관 인사행정은 司書身分의 법적 자격을 법률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그러므로 도서관 직원은 우선적으로 司書로서 補充하지 않으면 안된 줄로 안다.

2. 專門司書의 確保問題

그러면 오늘날 司書들은 과연 전문직으로서의 職分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으며, 자기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형편인 것 같다. 일반인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書記의 地位로 밖에 보지 않고 있는 현재 司書의 身分을 특별히 일반직과 구분해서 우대할 근거는 무엇인가, 權益을 옹호하기 이전에 自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도서관의 사서직이 소위 書記의 지위에서 벗어나 기술직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려면 正司書 자격증을 획득한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專門職으로서의 어떤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大學社會에서는 모든 司書들의 자질 향상을 꾀해야 할 것 같다. 圖書館學 분야의 大學院 과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다행히 근년 들어 일선 사서들의 대학원 진학의 경향이 현저한 것은 내일의 도서관관계의 발전을 위해 반가운 일이기도 하나, 이들이 大學院을 졸업하고서도 4년제 학부 졸업생과 동등의 대우를 받고 있어, 구태여 학위를 받을 의욕이 식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도서관인이 서기적 대우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하에서는 유능한 전문사서들이 도서관계에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서관계에 전문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태에 있는 이때 일부 현직 전문사서들마저 대우 조건이 낡은 대기업체 자리 실이나, 아니면 학교교단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학당국의 대책이 아쉬울 뿐이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숙제중의 하나이면서도 전문사서의 대우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대학행정 당국은 다시금 감안해서 대학도서관의 전문직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들 학위 소지자들에게 대한 우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學生利用率急上昇과 奉仕體制強化

大學卒業制度의 改善方案으로 1976년도부터 卒業論文이 學士學位 取得의 必須條件이 됨에 따라 學生들은 자기 자기 專攻과 관련한 폭넓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 근년 들어 도서관을 찾는 학생수가 부쩍 늘었고, 지난 1년 동안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율이 어느 해보다도 높았던 것 같다. 이는 오늘날 大學教育이 美國의 大學과 같이 도서관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실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이 과거처럼 교수들의 강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학생들이 자주적 학문研修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학생들은 研究 論文 쓰기의 과정에서 연구하는 방법, 자료 수집하는 방법, 論文 題目의 背景에 관한 독서와 參考文獻의 選定 등을 도서관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습득하고, 專門學問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한편 도서관은 학생들의 문헌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완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몇 유수 대학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교수·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 같다. 그것은 대학 재정의 어려움 때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대학행정 당국의 도서관에 대한 깊은 인식이 더 아쉬운 것이다. 한편 학생들이 문헌탐색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도서관직원의 협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사서들은 교수·학생들의 참고질문이 있을 경우, 해당 참고질문에 대해서 신속 정확히 원조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게 하려하는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전문사서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거개의 대학도서관들은 전문사서의 부족현상으로 이용자들에 대해 일반참고봉사밖에 할 수 없고, 전문참고봉사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4. 指定圖書制와 教授協助問題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또 指定圖書制度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指定圖書制度問題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도 75년 10월 12일자<週聞朝朝>에다 「大學教育과 指定圖書制의 活用」이란 題目으로 寄稿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指定圖書制의 필요성을 大學마다 인정하여, 이 制度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도 있으나, 아직 이 制度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는 것 같다.

指定圖書制度는 教授가 자기가 담당한 科目을 교수함에 있어서 受講하는 학생들에게 강의에 결하여서 반드시 參考하여야 할 도서들의 목록을 매학기초에 도서

관에 지정도서로서 제출하면 이 도서를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別書架 또는 특정열람실에 비치하여 학생들에게 열람시키는 제도이다. 이 점에 있어, 지정도서제는 하나의 교육방법으로서, 재래식 강의방식과 토론 방식을 초월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그 의의를 찾는 것이다. 지정도서는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한종의 책에 대하여 열 권 이상의 복본을 비치하고, 학생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정도서는 매학기마다 바뀌어지므로 교수들에게 부담이 따르고 도서관의 입장으로는 과중한 봉사업무이기도 하다. 교수들은 학기초마다 지정도서를 새로 선정해야 하고 도서관으로서는 지정도서를 수집하는 일들이 성질상 광범위한 일이기 때문에 지정도서의 特殊集書를 맡고 있는 사서는 대학 컬리큘럼에 친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정도서실을 맡은 사서는 대학교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조사 및 연구면에서 교수들의 강의와 연구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한편 훌륭한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기본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교수들은 도서관 이용이 포함된 숙제를 학생들에게 자주 낼 것이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書誌的 지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도서관사서를 자기들의 강의실에 초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정도서제도가 원만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요구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1) 교수들은 학기가 시작하기 앞서 도서관에 지정도서들이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강의에 맞춰 대학과목에 따른 과제 독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도서로 채택된 낱자와 소멸된 낱자들과 같은 사실을 기록해둬야 한다.

2) 교수는 학생들에게 과제도서를 발표하기 전에 도서관에 그목록을 제출하여 도서관이 지정도서를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을 주어야 한다.

3) 교수가 지정도서목록을 도서관에 제출하기도 전에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주어 성급한 학생들로 하여금 지정 서가에서 책을 찾게 하여 도서관을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정도서는 교수의 교과과정상의 방편의 일부이며, 도서관은 그러한 독서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 원초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지정도서제가 잘 운영이 되려면 교수와 사서와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계적이타기 보다는 교육적인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지정도서의 목서가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도를 그만큼 크게 높여 주기 때문에 지정도서제의 효과적인 운영은 분명히 대학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지정도서제의 성패 여부는 교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으로서는 계속해서 교수들에게 지정도서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식과 협조를 촉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문교부의 「대학도서관기구개편안」

문교부는 지난 5월 28일자 「문교부 시달, 대학 104 0-843호」로 私立機關의 기구개편에 대한 「문교부 시달 준칙」을 전국 사립대학 총장 앞으로 보낼바 있다. 「동 시달준칙」 내용에 있는 도서관에 관한 부분을 보고, 도서관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이 컸다. 大學圖書館을 국가적 次元에서 육성 발전시켜야 할 문교부가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간과한 듯한 「도서관 기구개편안」이었기 때문이다. 동 기구 개편안의 내용을 소개하려는 ① 대학·초급대학 및 전문학교의 도서관에는 「수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일반적으로,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적 또는 도서관학 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갑작스런 「문교부시달 준칙」 내용은 너무도 대학도서관의 업무내용과 그 기능을 모르고 만든 「준칙」인 것 같아 대학도서관인의 실망은 클 수 밖에 없었다. 문교부가 모처럼 대학도서관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좋았으나, 그 「문교부안」이 대학도서관의 육성책이 되기보다는 矯角殺牛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마저 갖게했던 것이다. 그래서 筆者는 문교부안에 대해서 ‘도협월보’ 지난 6월호 <觀我台>에 그 부당성을 피력한 바도 있었다.

이 「문교부 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난 6월 13일에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는 단국대학교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문교부장관 앞으로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의 「수정희망안」을 정식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협의회 소속대학교 총장과 도서관장에게도 각각 공문을 보내어 동 협의회가 채택한 「수정희망안」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후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동 협의회가 마련한 「수정희망안」의 주요골자는 「대학·초급대학·및 전문학교의 도서관에는 사서과와 열람과를 두며 각 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과장을 사서 자격증을 소지 한자로 보하는 이유로서 열

람과장이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서 자격을 가진자로 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전문적인 기본업무를 담당하는 사서과장 역시 도서관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보하여야 도서관 업무처리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① 도서관법 제6조와 ②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들었다.

이와 같은 동 협의회는 건의가 그후에 정식으로 있었다면 이에 대한 문교부의 어떤 반응이 있었을 법한데, 들리는 바와 같이,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가 채택한 건의안이 그후 문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동 협의회는 무성의(?)를 드러낸 처사로서, 도서관계에 또 하나의 실망을 안겨다 준 결과가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 그후, 동 협의회에 소속된 일부 사립대학 도서관에서 이미 「문교부 시달준칙」에 의거하여 도서관 기구를 개편한 것 같고, 이어서 다른 몇몇 대학도서관들도 「문교부 안」대로 기구 개편의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문교부 안」이 전국대학 도서관학의 의견을 참작하여 만든 「시달 준칙」은 아닌것 같고, 문교부의 일방적인

발안에 불과하다면 우리대학 도서관인으로서도 이 문교부안에 그대로 따를 수만은 없지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문교부 행정직원가운데 도서관학 교육을 받은 司書官職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물며 「문교부안」이 대학도서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문교부로서도 「동시달 준칙」에 대해서 제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맺는 말

이상과 같이 대학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중 몇가지 과제를 가지고 필자 나름대로 소견을 펼쳐 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1977에만 국한된 문제들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우리대학도서관계가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한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의 교육적 기능강화라든가 전문사서의 확보문제·지도도서제도 등은 전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언급이 된 문제이다.

새해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씩하나씩 소망대로 이루어져서 도서관이 명실공히 대학의 살아 있는 심장으로써 대학사회의 총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各 圖 書 館 必 携 的 參 考 文 獻

R. E.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BURT FRANKSO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敝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注文을 拜受하고 있어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 鐘路區 鐘路 1 街 40 電話 (72) 5131~83